

금주일이 배움은 먼저 계을을 보 호하여 열고 닫음을 필히 굳게 하고, 배움고서 받지 말며 힘써 행하 고서 놓지 말라 (법규경·교육품 39월)

東大新聞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1호 (2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호 (770-2057)

제 1175 호 (주간) 1994. 5. 11 목요일 호 1-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불기 2539년) 5월 17일 (수요일) 1



◇ 광주 영령들의 명복을...총학생회는 15주기를 맞는 5·18광주민주화항쟁을 기려 지난 16일부터 각 건물에 5·18영령을 위한 불향소를 설치했다. (백도나 기자)

95 통일맞이 목격대동제

자주적인 대학문화 창조·통일의지 확산의 장으로
주점 20개로 제한...주류판매 이익금 체육부 지원

제27대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는 '발가락이 닳았네'란 모토와 '과학생회를 기반으로 학우들의 주동적 참여를 일구어내고 대동제를 통일지방의 지주적이고 민족적 대학문화로 만들어 민족화해·민족대단결의 의지를 모아 6·3청년학생 대회로 달려가자'란 총기치를 가지고 오는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까지 '95 통일맞이 북벽 대동제'를 교내 곳곳에서 다채롭게 실시한다.

총학생회는 지금까지의 소비 향락적인, 특히 주점별인 대동제를 벗어나 올해 대동제를 '통일'을 중심으로 '6·3조국통일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방해를 위한 청년학생대회'를 준비하고 8·15민족통일행사를 이어 가는 데 있어 통일에 대한 대의를 확산하고 일꾼들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총학생회는 △개개인의 다양한 모습을 표출 △과외의 모 든 사안을 총학생회로 집중, 산만하고 분산적인 진행 지양 △기간의 학원지주화투쟁을 묶어내고 △학기 투쟁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대동제의 모토인 '발가락이 닳았네'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더욱 커지는 공동체를 향한 아름다운 인연을 담는다는 취지 아래 △22일(전

야제) △23일(개막식)=저음처럼 △24일(상설마당)=표정찾기 △25일(통국인 한마당=폐막식)=통국인답게 등의 소주제로 꾸며졌다.

한편, '대동제=주동제(酒肉祭)'라는 인식이 들끓는 주점이 많았던 이전 대동제에 비해 이번엔 각 단

◇대동제 일정표

시간	행사	주최	장소
5시	통일노래 한마당	통노협	만해광장
*23일-저음처럼			
2시	개막식	총학생회	불상앞
3시 30분	8·15 민족통일행사 추진본부 발족식	총학생회	소강당
4시	통일방안 대토론회	총학생회	소강당
5시	'세상권기(강연회)'	동연	연희관
*24일-표정만들기			
12시	신우부 연주시범	신우부	만해광장
1시	쌍쌍 요리대회	총학생회	도서관앞
2시	심장이 선발대회	총학생회	분수대
3시	제2회 풍물 판굿경연대회	단풍연	만해광장
3시	씨름대회	총학생회	만해광장
3시	백상응원제	백상응원단	수영장
*25일-통국인답게			
4시	통국인한마당, 과 티 경연대회	총학생회	만해광장

"실질적 교류 위한 방안 결정"

송총장 일본 자매대학방문 성과 발표

송총장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의 자매대학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문에 대해 관계자들은 "경제적으로 실질적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안의 결정을 이루었으며 각 대학의 시설운영 방안,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본교의 발전적 계획에 참고자료를 많이 획득했다"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방문교별로 그 성과를 살펴보면 5월 10일 방문한 불교대학에서는 1월에 한일문화학술회의 개최를 결정했는데 이 회의를 통해 한일문화 교류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여 동국대후원회 결성의 모태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방문한 용곡대학에서는 학생 교류증진에서 교수, 학술, 도서관 자료교환 등으로 교류를 확대할 논의 했다.

12일 방문한 대정대학에서는 학생 단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했으며 가능한한 10월부터 교류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한일문화교류의 실질적 방 향제시와 목표설정 등을 위해 송총장의 대강연회 개최를 제의받고 이를 수락했다.

13일 방문한 고마자와대학에서는 중단됐던 양교의 교류를 재협정에 의한 새로운 출발을 결의함으로써 그동안 막혔던 우호관계가 크게 선 양 증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 감사 편지 보내기 운동 스승의 날 맞아 기획행사 전개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는 스승의 날 기획행사의 하나로 '스승에게 감사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기획해 오늘(17일) 각 교수 연구실에 편지수거함을 설치한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총학생회는 불상앞에서 기념행사 및 액전지를 열었는데, 오전 11시 30분 불상앞에서 총장과 총학생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기념행사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이 학생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간단한 떡과 음료로 다과회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한편, '교수님과 함께보는 감동의 명화'를 15일에 상영하려 했으나 비디오 고장으로 상영하지 못했다.

농농활 26일부터

충북 제천 봉양면에서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는 농농활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충북 제천 봉양면에서 실시한다.

작년(94년) 충북 제천 수사면에서 장소를 옮겨 실시되는 이번 농 농활은 학생회와 사업일정 및 한층진 출발식으로 인해 예년보다 늦게 진행 되는 것이다.

남경대학 파견생 5월중 선발 교수 교류도 추진 전망

국제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 학)는 오는 9월 1일 자매대학인 중국 남경대학에 파견할 유학생을 5월중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2, 3명이며 학과에 제한없이 본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경비는 교통비를 제외한 학비와 생활비가 1년에 3백4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기간중 생활은 기숙사에서 하게 되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다음주 중으로 결정될 것이다.

한편, 남경대학은 교수교류를 위해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교수 1백여명의 프로젝트를 본교 학술부에 전달했다. 이에 본교에서도 희망교수

에 한해 교수교류가 추진될 전망이다.

일본대정대 유학생선발

18일 일어필기·회화 시험

국제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 학)는 일본 대정대학에 보낼 유학 생 접수를 지난 9일부터 시작하여 12일 마감했다.

모집인원은 서울7명, 경주3명이었으며 이에 서울25명, 경주19명의 학생이 신청했다.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선발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과목을 일어필기, 일어회화이다.

보리수

공(空)의 진리

본교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차없는 날로 제정하여 지난 4월에 처음 실시하였다.

실시하기 앞서 오늘날처럼 교통이 불편한 날에 차없는 날이 무엇인가, 지옥철이나 난폭버스에 지쳐 학교에 오면 어떻게 근무하고 교수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사실 자가용을 타고 통교하여도 교통난에 진저리를 떨게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신세 박부대 학교당국이 교직원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닌가하고, 그러나 막상 차없는 날을 장하고 교정 구성마다 수백대의 차들이 빠져나가고 보니 텅 빈 새로운 공간을 차지한 기분이 들었다. 교정 어디를 가나 주차하고 있는 차들에 보행하기도 어려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텅이 러니 비어 있는 공간, 이것을 어디에 비견할 수 있는가, 대천한바 다의 모래사장에 나온것 같고 한 라산 백록담에서 심호흡을 하는 호연지를 느끼게 한다. 공간은 채우는것이 아니라 비우는것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는듯 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이란 이와같은 의미일지 모르나, 우리 들 마음속에 은갖 자존심, 열등의 심, 차별심, 한계사항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게 된다. 자기만이 대단한 인격체라 생각 하여 분에 넘치는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과 상대 한다는 것은 이쪽도 기분이 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존심의 증대

는 차별의식을 강화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은 하찮은 인격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마음의 행로는 괴로운 것이다. 답답하고 갑갑한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자만심·차별 의식·열등의식이 증증적으로 쌓여 있기에 이러한 마음은 번뇌인 것이다. 번뇌는 없는 것이 편안 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번뇌의 요소를 마음의 공간에 채워 버려 버려야 한다는 한계 의식에 사로잡힌다. 이 한 계상황에 부디차렷 바로 앞서 잘

못된 의식을 비워버려야 하는데 영종한 행위를 하고 있다. 더 많은 번뇌를 마음의 자리에 틀어 채우고 있는 것이다. 마음 놓고 비워버려야 한다.

나도 옛날 국민학교 교정에 차 한대 없는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뒹굴던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 학교 차없는 날에 나는 어린 아이의 순진함, 마음으로 돌아가 게 되었다. 마음에 욕망을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이 비우는 것이다. 비우는 곳에 는 편안한 안정이 온다는 상식을 배우 게 한 '차없는 날'이 비워버리고 사는 슬기를 안겨준 날이라 생각 한다.

목정배
불교대학원 원장

취업과 기업체 방문 동문재직기업체 중심

취업과(과장=황우열) 동문재직 기업체를 중심으로 취업률 향상을 위한 기업체 방문을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

롯데그룹, 주식회사 쌍방울 외 60여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방문은 지난 15일까지 11개 기업체를 방문, 학교 홍보를 했다.

'재학생 모교방문'은 호응
'재학생 모교방문'이 지난 15일까지 1백22개교의 학생들이 신청해 큰 호응을 얻고있다.

취업과(과장=선상규)에서 주최 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방문기간 이 지난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신청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 학생과 계장은 "지난해 일 시흥보차원에서 벗어난 스승의 날 을 맞아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행사취지를 재조정할 것이 큰 호응 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 인사 이동
총무처(처장=염준근·통계학)는 지난 4일 △최기석=총무처 총무과 △한정철=불교대학 교학과 △이영 숙=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로 직원인사를 단행했다.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이제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1950 - 1995
창간 45돌
동대신문

제37기 수습기자 모집

- 모집부문 및 인원
취재기자 ○명 사진기자 ○명 만화기자 ○명
- 응시 자격
본교 1학년예 재학생인 모든분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및 논술시험
2차 개별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함)
- 제출서류
입사원서 (본사 소정양식)1부
-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5년 5월 17일(수)~5월 31일 오후 5시까지
- 원서 교부처
서울캠퍼스학생회관 옥내지하 1층, 본사 총무부
경주캠퍼스학생회관 2층 본사 편집부

- 전형일
1차전형
서울캠퍼스 95년 5월 31일(수) 오후 6시
학림관 J201
경주캠퍼스 95년 5월 31일(수) 오후 6시
원효관 A301
- 2차전형
1차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공고
※ 기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장학금 지급

동대신문사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취이텔 (ID: dg.press)

신설학과 기초학습권 마련 요구 “무성의한 임시방편 대처 분노”

나무들이 푸르러 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시렵다. 학우들의 웃음소리가 퍼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낙담해진다. 한달여 동안 정당하고 진지하게 동국대의 발전을 바라면서 농성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간혹 찾아오는 학교 직원선생님들의 ‘안타깝기는 하지만...’이라는 말씀과 함께 ‘학교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한기마의 기대마저 사라져간다.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이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전 ‘동대신문’을 보던 중 ‘신설

학과 학회실 마련될 듯, 광고학과 교수채용 해결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제 해결되는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했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 갈수록 점점 허탈해질 수 밖에 없었다. 진정 신설학과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안이라고 보다 임시방편에 미치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듯한 뒷감당 정도도 우리와 문제를 대하는 학교 당국의 무성의에 다시 분노가 치민다. 며칠전에 들기에 내년에 또다시 신설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계획·무성의한 학교당국의 행정에 또다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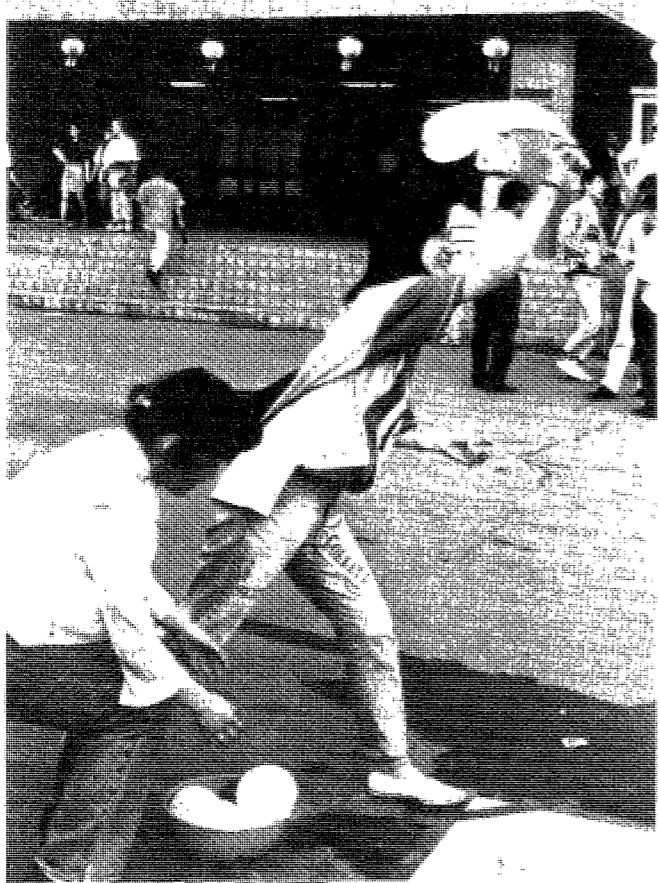
리같은 희생자들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은 참 서글프다.
2년동안이나 기초학습권조차 마련되지 않아서 학습에 열중하지 못하는 일은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지금 힘들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다음 학번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이런 수고를 대하는 학교 당국의 무성의에 우리는 지친 어깨를 다시 세우려 한다.
백승미
(이간강좌 광고학과)

교생 ... 교사에 대한 자질 확인 진정한 교육실습 돼야

시험대 학우들은 4학년이 되면 타 단체 학우들이 할 수 없는 경험을 갖게된다. 바로 한 달간 진행되는 교생실습.
실제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우들은 자신이 얼마나 교사생활에 자질과 열정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견습하는 기간으로, 실사 그렇지 않은 학우들은 취업을 앞둔 상황이지만 주어진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속에서 나름의 의미를 실정한다. 그러나 멀리는 가슴으로 처음 선 교단에서의 해맑은 아이들과의 꿈결같은 순간들 만으로 교생실습을 기억할 수 있을까?
교생실습을 준비하며 집주위 학교에 실습신청을 하다 3~4번쯤 퇴짜를 맞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보니 학교에서 지정해준 심지어 2시간씩 되는 거리를 이동하며 실습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간 학교에는 여지없이 50여명이 넘는 교생들로 한 학급당 2~3명의 교생들이 배당된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간 학교측

의 반응은 첫날 교장선생님의 “안 받으려 했는데...”로 시작되는 가슴 쓰린, 그러면서도 분노보다는 기죽음으로 반응될 수 밖에 없는 말로 대변된다. 운이 좋아 잘 걸리든 몰라도 마치 교생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밀려드는 잡일 만을 허거나 한달내내 수업 한시간 받지못해 서늘한 교생실에서 잠담으로 보내는 이들이 몇몇 있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없을까?
아니다. 이는 “교생실습은 학교재량”이라는 교육행정계의 무원칙·무책임이 가져온 결과이다. 또한 이 현실은 몇몇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조여오는 임시직육의 홍역을 대비한 현상(중·고등학교)에서는 확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습다운 실습하면 하지 못한채 교사가 되었을때 겪을 당황스러운 그 때 되어서야 다시 반복된 실제 실습의 문제로 나라날 것이다.
이소정
(사범대 역교과)

대동제, 우리문화 되찾는 장 소비·퇴폐적 모습 지양해야



비적문화를 일소하고자 주점의 숫자를 줄이고 주막거리를 보다 학교 안쪽으로 배치하는 등 축제준비위의 노력이 엿보였다.
대학의 대동제는 하나의 기념적 행사로 유래되어온 축제는 소비적 문화를 배격하고 보다 진솔한 민중의 문화, 우리의 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것과 대동 단결해 낸다는 의미에서 대동제라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다.
어쨌든 대동제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올해 대동제는 “우리가 만드는 대동제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시작되었다.
대학 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대동제.

그러나 이제 대학 문화가 기존의 대학문화가 아니라 자본문화, 상업문화가 침투되어 많은 의미들이 퇴색되어지고 이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시작이다. 시작은 늘상 가슴 떨리는 희망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대동제 문화를 열어 보겠다는 준비위는 보다 더 올바르게 나아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학우들은 5월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보다 깊이 있는, 그리고 대학의 개혁을 위한 단결의 장에 그 중심으로 서야 할 것이다. 그럴때만이 대동제의 장을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유성훈
(이부대 법학과)

◇작년 대동제때 ‘동선연지기’장면
해마다 5월이 되면 기대감이 가득한 대동제가 열린다. 임시서기서야 홀트관 캠퍼스의 교정과 화랑도의 굳은 신의의 뜻을

“5월의 광주를 기억하자” 역사, 민중이 동력된 진보의 출정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유일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망각일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슬픈일이나 고통을 당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고 마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 버린다는건 가끔은 행복할 수도 있고, 아픔을 빨리 치유할 수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아픔을 잊고, 고통을 극복한다고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잊지말아야 할 일들을 잊는다는 건 또 다른 아픔이요, 고통일 것이다.
해마다 역사의 장중한 피의 외침은 이시각에도 또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역사란 민중이 동력이 되어 진보와 혁신의 장엄한 출정인 것이다.
80년 5월18일, 군사독재의 막을 내리고 민중의 정치권력창출에 군

부의 광주의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 원흉이 권좌에 오르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역사를 잊고 지내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 있다. 80년 5월의 광주를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문민정부(?)에서는 그 단편적인 평가를 내리고 진실은 은폐하고 있다.
노동자가 분신하고, 항의방문을 하는 노동자에게 구속 수배가 자행되고 철거민들의 삶이 짓밟고 갑작스레 지하에서 가스가 폭발하는등 민중의 삶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대동제라 하여 들뜬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피의 역사가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박준철
(법문대 불교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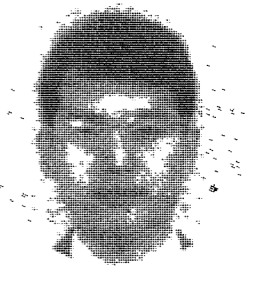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한총련 특집기사 주목돼 학교발전의지 계속 추동해야

지난호(제1174호) 동대신문은 크게 한총련 출범시기와 학교 발전을 위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한총련 출범식에 관한 기사는 5면이 특집기사로 할당되어 학우들의 관심을 불러모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 그리고 출범식 전 아예에 있었던 한총련과 진보연대 사이의 마찰에 대해 우려를 표한 4면의 동약로와 한총련과 진보연대의 기자회견 기사가 실려 이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이에 대해 학우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 발전을 위한 기사가 여러면에 실려있는데 1면에 대학총합평가 1

년 연기기사와 2세기 기획단 발족기사 3면 논설면에 우리학교의 해외 교류상황과 대안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학교 발전을 위한 기사는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 본다. 그러나 신문이 실린 학교측의 의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되거나 학교의 길을 차장하는데 치중하지 않고 진실로 학우들의 바램처럼 내실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이를 기사들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학우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김정식
(공과대 산업공학과·본사 모니터)

동/문/칼/럼 변화발전하는 총동창회를 기대하며

동국대학교가 11년후면 1백주년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만으로는 충실한 1백주년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89년이 되는 동안 동국대학교는 10만명의 동문을 배출하였으며, 사회 각계 각층에서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1백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90주년을 대비하고,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도 모교와 발맞추어 동문간의 유대관계를 위하여 사심을 버리고 한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동문간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
우선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조직강화를 위하여 각 지능별 동문회를 파악하고, 모든 동문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야 하며 이제 대학의 문을 나서서 재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창회로 재탄생해야 한다. 그리고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와 힘을 합쳐 보다 활성화된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지향해야 한다.
그동안 동국대학교총동창회에



최현희
서는 “사단법인 동우장학회”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2학기부터 재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고자 단전을 기하고, 동국발전기금을 위한 모든 노력을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와 더불어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동국대학교를 만족하지 못하며, 명문사회의 위위로 복귀하고 동시에 격상시키고 그 지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더 굳건한 동국발전의 의지와 실천이 요구된다.
동국인이 11년후를 생각해보라. 동국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들과 혹은 손자들과 더불어 웃으며 이야기 하는 모습을.
(총동창회 간사·국문98호)

잠깐 주목!
독자의 소식과 기쁨을 전하는 ‘동약광장’대자보가 자주 분실됩니다.
여러분이 꾸미는 ‘동약광장’을 지켜주세요!
편집자

목격골

-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근당
- 이번에 성인이 되는 지교 93학번 두개비형 무지무지 축하해요. -형의 영원한 팬
- 5월15일 컴공 94 '생쥐'의 생일을 축하하며 -94 열연더머
- 5월15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공대풍물 한소리 95 컴공 김용욱군과 안홍준군이 성년이 됨을 많이 축하해 주세요
- 컴공 94 안숙현양의 생일이에요. 많이 축하해요. -성자, 삼촌, 승민
- 정원아! 생일을 이~따만큼 축하한다. 아름다운 프로그가 되어라. -현여울 16기동기기자 과친구가
- 아리랑의 두 맛수 보영이와 병권의 생일입니다.(13일). 95들이 많이 축하드려요. -아리랑의 예쁜 95들이
- 유스호스텔 제16층 창립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쁜 15기
- 뱀을 만치 먹은 나이에 무슨 축하? 아마도 축하해 소영아! -94 정외
- 영문풍물의 자존심 승현이형! 생일 진짜진짜 축하해요. -95 풀물이가
- 이번에 성인이 되는 지교 94인니, 오빠 축하드립니다. -예쁜 95
- 민중사랑 10주년을 진심으로

동/약/광/장

- 23일 방송제 연속으로 골머리 썩는 36기 제작진 여러분 화이팅! 그리고 다른 국민 모두 잘해봅시다. -제작부 공주
- 금강산으로 명찰순례 잘 다녀오세요. 모든 분들 좋은 경험 되세요. -학관 9층의 어떤이
-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진정한 공학인으로의 자세를 갖게 해주신 전자공학과 이진규교수님 감사드립니다. -94 이재춘 올림
- M.T.갔따오나라 정말 수고한 한소리 16기들 정말 사랑한다. -한소리 5기 일동
- 빛물이 M.T. 또간다. 아~호! 뽀찐나게 놀다오자. -늬은이 94가
- To 도열, 옥이, 지연, 소영, 수경...일부수학 시험 잘라봐, 재수감 이잖아. -승현
- 학부위는 도대체, 뭐니까? 학부 좀 편하게 보냅시다. -광의형이

은방골

- 행정학과 과대학 농구 준우승을 축하하며 88학번 명우형 89학번 환호형 91학번 인욱형 92학번 상근이에게 감사드립니다. -페인보스
- 주마 추첨은 비록 끝났지만 대동제때 열심히 해봐요. -비를 좋아하는 남자 산애
- 영화모임 소년비 16mm영화제작 좋은 결과 있기를 모두 열심히 -休
- 대호야 생일 축하한다. 선물은 준비 못하고 메모로써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 -동걸
- 한문학과와 귀엽둥이 재호의 생일을 축하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지대현상을 위하여 -광의형이

수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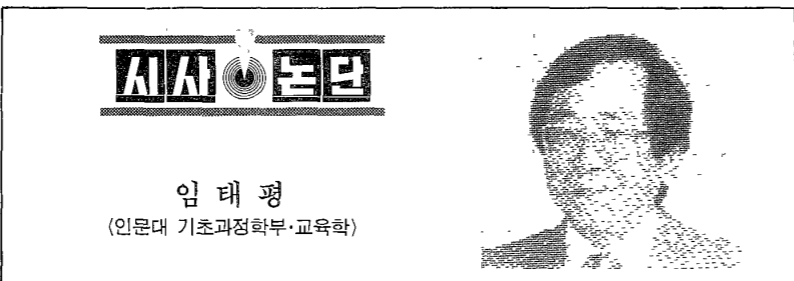
- 제4회 춘계 명찰순례를 준비하신 학생과 선생님들과 참여하신 모

- 사회복지학과 95학번 김효정, 안영주 생일을 축하드리고 이세용 군의 성년됨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94학번 선배님들의 성년됨도 같이 축하드립니다. -95동기
- 마음소리 성년됨을 축하한다. -노인네
- 노강의 스물세번째 생일(19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더욱더 건강하길... -금장두루
- 행정학과 과대학 농구 준우승을 축하하며 88학번 명우형 89학번 환호형 91학번 인욱형 92학번 상근이에게 감사드립니다. -페인보스
- 주마 추첨은 비록 끝났지만 대동제때 열심히 해봐요. -비를 좋아하는 남자 산애
- 영화모임 소년비 16mm영화제작 좋은 결과 있기를 모두 열심히 -休
- 대호야 생일 축하한다. 선물은 준비 못하고 메모로써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 -동걸
- 한문학과와 귀엽둥이 재호의 생일을 축하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지대현상을 위하여 -광의형이
- 사랑하는 靑波에 나의 모든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편하게 살자구요. -연대
- 5월18일 거말못의 첫 일일 호프가 무사히 흑자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95 거말못회원
- 대동제 준비로 피로에 지친 총학생회 집행 여러분 힘내고 정말 올바른 대동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선
- Newsweek cover show에 동국인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92치타
- KUSA사람들 보고 싶어요. -희중
- 한총련 개혁모임 -진보-연대 동지를 환영합니다. 올해는 변혁적 민주노총 산별노조가 건설되는 해입니다. 청년학생의 제3차 개입으로 노동악법 철폐하고 노동해방의 그 날로 힘차게 진군합니다. -제7대삼경대학생회
- 동국음악회 춘계 콘서트 6월7일 문무관 -희중
- 그러므로 우리는 꿈꾸기 시작했네. -동국문화의 시선 시낭송회(5.18)열심히 합니다.

대학이란

특수집단 전유물 아닌 탐구자 대화의 장

현대 대학은 1930년 즈음에 완전히 확립된 세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첫째는 연구를 향상시켜 최고의 인간 지식을 증진하는 기능이고 둘째는 학생들에게 교수하는 기능이며 그리고 셋째는 사회에 봉사할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능이다. 영국 런던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M.Oakeshott는 "The Idea of University"(1950)라는 글에서 대학은 특수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또한 특수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계가 아니다. 대학은 인간활동의 한 방식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대학교육 개념 정립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임대평 (인문대 기초과정학부·교육학)

인간 활동의 한 방식이라는 그 활동에는 물론 '학문추구'를 위한 활동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 활동의 특수한 방식인 대학은 따라서 '학문'이라는 언어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특수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 선전을 할 필요가 있는 인간활동의 한 방식은 아니다. 인간존재는 사물들로 구성된 세계가 아니고 의미로 구성된 세계의 거주자이다. 그래서 실제와 경험의 어떤 본질은 가능하지 않다. 실재는 단순한 정신적 사상의 세계이거나 단순한 편견들의 세계이다. 교육은 그가 실제적인 경험의 양식과 과학·역사·미학·철학적 경험의 양식들 사이에 그 어떤 일정한 구분(다섯가지 경험양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와 대학에서 영위되는 참된 교육은 젊은이들을 실제적인 경험 세계로 부터 엄격히 가려낸 인간 이해의 언어들로 이루어진 은유적인 대화로의 입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인간이 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인 반면에 새로 들어서는 신참자들이 거주하게 되는 세계로 입문하는 세대들 사이의 교호작용이다. 그러므로, 대학을 특징짓는 것은 학문추구에 열중하는 특수한 방식이다. 여기에 Oakeshott가 말하는 대학의 존재이유가 있다. 대학은 학자들마다 특수한 분야의 학

문에 헌신했던 학자들의 범인체이다. 특징적인 것은 합동기업으로서 학문추구이다. 따라서 만약 대학을 하나의 장소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학의 성격의 일부를 틀림없이 무시한 것이 된다. 더구나 대학은 학문의 서식지이고 학문의 전통이 보존되고 확대되는 장소이고 학문추구에 필요한 기구가 함께 모여있는 곳이다. 따라서 그의 대학의 관념에는 학문추구를 위해 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외의 대학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다. 대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났고 그래서 학문추구를 뒷받침하고 학문추구에 기여했던 방식을 위해 존중되어 유지되어 왔던 전통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미래의 직업적인 역할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그는 대학이 교육을 제공하는 유일한 장치라고 생각지도 않았다. 대학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연구만으로 교육받게 되지는 않는다. 대학은 대학학과와 교과과정과 특별활동 뿐만 아니라 대학문화와 인간공동체의 일부인 대학이 제공하는 기회를 통하여 충분한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그 때문에 그는 특수하고 국부화된 공동체로서 대학의 제도적인 본질을 강조한다.

학자, 교수를 겸하는 학자와 학부재학생의 존재와 그들 사이에 유행하는 관계는 학문추구라고 부르는 광대한 기업에서의 대학의 독특한 지위를 결정한다. 이들 중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계속되는 여가를 학문에

전념하고 그들의 동료들은 대화로부터 지식의 이점을 갖고, 세계는 그들의 저술들에서 이득을 본다 고 기대된다. 이러한 유행의 학자없는 학문의 장소는 대학이라고 거의 불리워질 수 없다. 그밖의 학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데와 마찬가지로 가르치는데 열중한다. 이에 그들은 전자의 다른 대학에서의 지위를 갖는다. 대학을 특징짓는 것은 이러한 교육기업의 특수한 방식때문이다. 대학에서 가르침을 받게되는 사람들도 학부재학생은 단순히 초심자들이 아니고 교수들 앞에서 그들의 학문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시험과 학위의 보상이 수반되는 연구의 교과과정도 제공받는다. 따라서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구성한다.

대학은 단 한 명의 탁월한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끌어내는 아카데미가 아니고 인격적이고 학자적인 서로서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학자들의 조직체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학은 개개의 학자들의 교수권을 초월하는 교수권을 갖고 있다. 대학은 많은 상이한 부류의 교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 부류의 교수는 다른 부류의 교수들과의 교과과정에서 대학의 권한을 끌어낸다.

학부재학생들이 무엇보다 제공받는 것은 학부재학생을 위한 사립에 착수하기 전에 여가를 갖기 위한 기회인 '막간의 선물'(gift of interval)이다. 이때 여가를 갖는다는 것은 교육적인 대화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동과 놀이 사이의 번거로운 구분인 이담의 파문

으로부터 잠시동안 자유롭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같이 대학이 제공하는 막간의 선물을 갖게 되는 학부재학생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 이외에 특별한 수혜를 갖고 있다. 학부재학생은 아동도 초학자도 아니다. 그는 이미 어딘가에서 학교교육도 받았고 대양에 그 자신과 함께 모험을 해볼만큼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충분한 학식으로 갖고 있다. 그는 아동도 성인도 아니나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지니는 세계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다만 충분히 알 때 삶의 이상한 중간에 서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고 혹은 경쟁자들을 시샘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성격과 갖고 있는 학부재학생이 대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학문추구이며 이것이 대학의 이상이다. 그 이상이 영국대학의 전통이었다고 Oakeshott는 말한다. "대학은 학자들을 만들어 내는 장치가 아니다...약 400년동안 영국에서 학자지향성 교육과 세계인간 교육은 같았고 이러한 전통이 우리의 대학 관념에 속한다"이 점에서 대학은 학부재학생에게 선택할 제한된 다양한 과목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대학은 학부재학생이 교수-동료의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 교육의 기회를 갖는 장소이다.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는 교육개혁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이 어느 특수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듯 교육개혁은 어느 특수집단만의 개혁이 아니다. Cicero의 말을 대변한다면, 우리는 "교육을 하려는 부류 끌어내려 도시에 안주시키고 가정으로 소개하여 생활과 도덕·선과 악에 따라 만들어진 탐구자들에게 교육을 필수적이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은 교육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 점에서 전 포항공대 김호길 총장의 지적은 의미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학자가 교육에서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설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해야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지 올해로 15주년을 맞는다.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 광주항쟁에 대한 어떠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통과할 수 없다. 또한 올해로 광주학살자에 대한 법적인 공소시효가 마감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공소시효만료라는 이름으로 죄가 없어진다는 법제도의 어처구니없음은 차치하더라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올바르게 처리할 의지가 없었던 정권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다.

얼마전 '김지 5월호에 실린 최태수 목사의 '내가 겪은 광주, 80년 5월' 증언록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록된 그 증언록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무차별한 발포는 21일이 아닌 20일후부터 빈번하게 일어났고 당시 시민들은 총으로 무장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어 국회조사에 제출된 보고서가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광주시에 대한 헬기 기총사격증언과 광주사태에 미국의 개입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일어난 광주 민주항쟁은 10·26사건이후 권력의 공백상태에서 새로운 권력을 구축코자 했던 신군부에 대항한 광주시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점에서 '광주'라는 특정지역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시 학살자가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 한 과거의 일이 아닌 지금당장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주에서는 물론이고 서울과 부산, 대전, 전주, 마산, 진주 등 전국에서 5·18진상규명과 당시 무력 진압자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은 민족적 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민적 과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만료를 넘기지 않겠다는 결의임이 분명하다.

한총련도 5·18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소관할을 위한 한총련구국농성단을 결성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투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서남총련은 '5월 학살 책임자 전두환 노태우 사법처리를 묻는 총부표를 전개, 본교도 실시할 바 있다.

김영삼정권과 검찰은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적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학살책임자를 기소해야 할 것이다.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하여 우리는 비로소 5월 광주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 본교 대학종합평가 1년 연기 이후 과제

공개토론등으로 전통국인 대비해야

대학발전 계기 삼는다는 취지 긍정적

대학종합평가 인정제가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좋은 점수를 받기위한 평가준비가 아닌 보다 내실있는 학교 발전을 기한다는 취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국대학 교육협회의에 의해 실시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질적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로서 그 평가핵심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 시설, 설비, 재정, 경영등 대학

전 영역에 걸쳐 실시된다. 그러므로 각 대학의 발전지표가 훨씬 아니라 본교의 수준또한 한눈에 가늠할 수 있어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이다.

평가결과가 앞으로 대학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으나 이번 종합평가연기를 계기로 점수따기 위한 평가준비가 아닌 진정한 대학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학내의 여론이 높다.

교육부는 얼마전 교육과정등 학사운영전반에 걸쳐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도 이의 일환으로 대학의 자율화, 경쟁력을 통한 대학발전이 기본취지였으나 몇 대학의 과월적 요소로 인해 교육부의 대학발전이기는 부정적 모습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이다. 한여로 모대학은 합학기에 2백여명의 교수를 갑자기 증원했다는데 이는 그동안 어떻게 교육을 해왔는지를 의심케 한다. 평가를 이용해 외부의 지원등 혜택에만 치중했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다행히 본교의 종합평가연기가 성숙한 판단이라고는 해도 그동안 평가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남을 반증하는 것이

라는 목소리가 있다. 본교는 지난 93년 12월에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구성, 자료수집및 분석을 거쳤다. 지난주에는 각 행정부처에 평가대안을 전달했으며 각 부서 요구안이나 자체검토안이 취합되는대로 재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평가연구위원은 학술문화관 완공후 공간재배치, 교과과정 전면 개편뿐아니라 외국어 교육 강화, LAN시스템, 논의가 진행중인 등록금차등제도 평가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종합평가인정제는 상층의 주도에 의한 준비가 아닌 전통국인 이 함께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구성원모두가 인지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1년연기가 의미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자체검증 결과와 준비상황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평가연구위원회 박부권(교육학)교수는 "학생들도 평가준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계시물의 지정장소부착, 학생회실을 교육공간으로 전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 나름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대학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전 구성원간의 자발적 참여와 고인속에 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무성해야 할 때이며 공개토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김소영 기자)

동국만평

이영일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기업-現代

"20년전에는 어머니가 제 손을 이끌었지만
오늘은 제가 어머니의 손을 이끞니다."



입학식이 아닌 입사식에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20년전 어머니의 큰 걸음을 따라 들어갔던
국민학교 입학식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現代建設 신입사원 입사식

1백74명의 장성한 아들, 딸들이 들직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입사식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앞서 내미는 자식의 손에
부모님은 대견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학생에서 어엿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약속하는 자리 -
부모님을 모시고 새 각오를 다집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기업-現代
現代는 가족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신입사원을 맞이합니다.



95년 신입사원
이승조 사원과 어머니

생협으로 가는 길

마지막 -본교 상황은... 공관위 운영체제 아직은 미비 삼주체 관심, 생협 건설 낱아

본교에서 화내 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생협 건설의 과도기적 체계로서 생협건설의 목적을 운영규정=하는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공관위)가 지난해 3월1일 구성했다.

공관위는 새로운 복지사업의 개발이나 한시적이고 일과성 사업의 수행이 아닌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매장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위탁받은 조직으로 운영목적과 방향은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하여 학교의 전 구성원에게 학내 복지 시설이 시시저렵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형식과 내용을 생협건설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

복지사업의 발전적 대안으로 제시된 공관위는 실무준비위원회가 93년 11월 1차 회의를 통해 교수, 학생, 직원, 학교등 학내 제 주체들이 모인 가운데 그 구성을 합의함으로써 시작돼 실무준비위 5차회의에서 학생대표자와의 인준을 거친 최종운영규정에 결의하여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안정적 공관위 구성의 기간을 2년으로 예상하며 출범한 공관위는 처음부터 사무국장등 위원의 선임문제와 운영규정안 문제로 교수회측의 참여가 보류되는 등의 제반문제에 부딪혔다. 6차 회의에서 교수회 위원선임, 운영위원장에게 배정(경제학) 교수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자기 위상을 갖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도 위원장의 처우문제등으로 교수회가 불참하여 사업이 마비되는 등 운영체제조차 확고히 정립

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공관위는 직영사업으로 자판기, 통곡관 식당, 다량관 식당, 보리수, 다량관, 화장품 코너, 서점등을 경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유지자판기 재계약, 커피단가 인상, 학복위에서 반환해오던 손실금의 반환 정례화와 봄비는 시간의 다량관 식당에 메뉴수를 줄이고 배식구조의 이원화로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졸업생환송회, 사은회등의 다양한, 통곡관 식당, 보리수를 임대했으며 얼마전에는 공관위구성 이후 처음으로 임대매장이던 만해서점의 직영화를 이루었다. 현재에도 직영회의 적절성 등에 대해 학생회측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백상의 집, 보수와 임대업자 선정등의 사업이 계속 연기되는 것은 공

관위가 본교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운영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공관위는 그 구성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승인없이 총장의 인칭 하에 자체적인 감사체계를 갖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운영체제는 교수와 직원, 학생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한 상태이며 운영규정 또한 정립되지 않아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공관위가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등이 고려될 수 있는 구조, 생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안정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내 주체에게 생협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공관위가 생협의 건설 방향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복지문제만의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대학내에서의 올바른 생활문화의 정착과 학문공동체의 구체적 실천의 방안이라는 측면은 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학내 제주체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사학단신 고대생 7명 연행 조직 조작 사건 가능성 내포해 서울시경 항의 방문한 학생 모두 강제연행

지난 15일 새벽 6시경 고대 법학과 93학번 최호현군등 고대생 7명이 연행됐다.

이들 대부분은 보안수사대에서 발급한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연행 됐고 구속자 전원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이외에는 정확한 적용법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 모두는 현재 잠안동 서로서방경찰청(이하 서울시경)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변호도 가족들만이 허용될뿐 선후배는 금하고 이들을 회사원등 졸업생 및 군복무중인 이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 한층된 의장 정태중(고대총학생회장)이 수배에 들어가 공안정국을 알리니 이사건을 계기로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나 쓰던 해묵은 수법이 또다시 출현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김경관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이하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 눈을 떠놓으려 하는 것이라며, 김경관은 이에 대해 고대 총학생회는 조직사건으로의 조작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대총학생회 주축로 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서울시경의 3일동안 이사건 관련 보도를 하지말라는 협박성 요구로 아직 보도면에서는 협박을 내비치지 않고 있어 어떤식으로 조작되어 보도됨에 대해 심한 우려의 뜻을 표명한다.

또한 조작 가능성의 근거로 지난해 '김일성주의 청년동맹'을 예로 들었다. 언론에서 때때로 보도 하더라도 현재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김일성주의 청년동맹'이란 단어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고대생 1백20여명이 '정권의 공안 조직사건'에 대해 "문민정부하에서 면회하지 불허하는 김경삼장관 심판하자, 죄없는 연행학우 즉각 석방하라"등의 구호로 규탄집회를 갖고 고대 선전전을 벌인후 서울시경에 항의 방문을 갔다.

그러나 이들은 전두환정권의 구약속으로의 조작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별개 공안정국이 시작 될것이다. (사회부 조)

교수 기고 - 동국발전을 위한 제언

상층, 적극적 계획·메세지 전달... 구성원 공감대 형성해야

허정식 (상경대 정보산업학과)

3월6일 조선호텔 반월실에서 양식을 차려주는 식탁을 접하면서 석장동 새학기의 시그널이 작동되어지고 있음을 감지하였다. 교수처장 사회로 총장과 이사장의 인사와 당부가 있었다. 한국불교의 지도자이며 동국학원의 이사장이신 큰스님은 한국불교의 메세지를 전파하고 후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장은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다면 도태된다'고 지적하며 개선과 개혁을 위해 다같이 동참하자는 메세지를 남겼다. 그러나, 석장동 신호등 앞에 서있는 구성원들은 그 시그널이 작동되고 있는지 시그널 색상이 노란등인지 빨간등인지 파란등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색맹인지, 신호등 자체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인지...

요사이 상과대학생들의 조크에는 '목자 빠는 아담 스피스의 관전승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을 한다. 그 '조크'는 엔지 필자와 동료들에게 자유경쟁체제의 시장은 리를 암시하는 것 처럼 의미되어지고 있다.

만들면 팔리는 시대에는 최종소비자(학생)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시설과 조직은 폐기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구성원은 없으리라 보인다. 그러나 필동과 석장동의 경쟁우위 확보의 계획개선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 구성원의 인화와 계획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관리층은 데스크에 앉아서 몇마디의 구두전달이나 두 세줄의 공문을 하달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있다. 적극적으로 좋은 계획과 진정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세일즈맨의 자세를 요구한다.

둘째, 조직구조의 개선(Reengineering), 과업(Task)할당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어떤 학과에서 하나의 불만을 구입하는데 20개 이상의 도장이 필요하다면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필동과 메세지가 석장동에 닿을때는 부처님의 영주가 예수의 십자가로 변형되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기자재 배분과 활용, 그 관리 구성원에 관한 문제이다. 1960년대 초, 미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삼군통합령은 필동과 석장동에 시사하는 바 크다. 더욱이 관리운영자는 그 보수만큼 업무량이 있는 자가 심히 의심스럽다.

다섯째, 70년대 초, 조교를 할때는 신규 교수 채용으로 인하여 큰절을 받게되며 특강이나 프로젝트의 한 파트의 과업을 주어 연구를 촉진하면 애교스러운 보상은 어디로 가버리고 학문의 체계나 학과의 성격을 채 파악하지 못한 이들에게 학과의 책임을 맡기는 풍속도가 우리대학에는 없는지 진정 묻고 싶다. 대학의 핵은 학과이고 여러학과와의 집합은 대학이라는 큰 틀을 만든다고 본다. 어느 선진국도 학과 운영의 책임에는 학과와 연계를 전제하며 신성학과의 관리는 경중이 있는 석학을 초빙하는 것이 관례이다.

여섯째, 도서관의 역할은 독서장이 아

니고 자료를 접하고 활용하는 형태의 선진적모델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언어는 관념을 바꾼다고 한다. 계열화와 전문화 개념이 어렵게 해서 학과와 통폐합이라는 어휘로 표출되어 구성원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인 지 모르겠다. 오늘날 최고경영자의 자질은 Concept을 전시로 한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지식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동종분야를 집단화함으로써 그를 스스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과정속에 전문성이 심화되어 Cost와 Risk를 축소함으로써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석장동 이웃에는 한동대학교가 이미 95년 3월 개교하였고, 위대대학은 96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두 학교다. 질 좋은 교육은 경쟁의 우위를 낳는 것이다. 교수초빙과 수강생들의 복지향상사이에 남다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필동과 석장동에 편승되는 학생 예산의 용도가 관리의 개념에서 복지의 쓰임으로 바뀌어야 하며 학생체없는 선진국들도 큰문제가 없다는 것을 많은 교수들도 경험하였으리라 보아진다. 민자를 유치하여 10년내지 20년 동안 영업권을 행한 후, 소유권을 학교측에 반환하는 형식의 복지개념 학생회관의 유치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동국가족에게는 '식사조커스'가 조성되어야 하는 숙원사업이 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자원조달에 관한 심도깊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듣고 있다. 그러기에 최고경영권자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교육자원의 재구조화 과업배분, 확일과 권한을 과감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석장동은 신학부처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Yes"나 "틀거지죽"으로 폐쇄 자켓

을 걸치고 서성되는자들 걸지자 걸음을 마감하기 바란다. 필동은 '석장동은 석장동'이라는 인식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빠른편 빠른수목 좋은 것이다.

하드웨어 구축에 너무 매달려다 보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접하고 활용하는 기회를 상실하지않을까라는 노파심이 들곤 한다. 재단은 총장에게 "식사조"의 관심과 '필동과 석장동의 소프트웨어 구축에 시간과 노력을 배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었으면 한다. 총장도 구조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면 한다.

전세계 교역국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WTO가 1995년 1월 1일부터 출범하여 작금 각 분야에 걸쳐 경제규범비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필동과 석장동은 무엇을 해야할것인지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보아진다.

끝으로, 고인(告言)을 한다. 최근 법정소남이 퍼낸 '버리고 떠나기'라는 한 구절을 생각해 본다. '만약 나무 가지에 묶은일이 달린 채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계절이 와도 새 잎은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버리고 바꾸는 일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동국 전 구성원은 일체합심하여 목표 지향적이야 하며 총장에게 그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관행에 매달리지 말았으면 한다. 버려야 할것도 있을 것이다. 잘같이 말이다.

또한, 동국학원 프로젝트에 각.각.각으로 참여하는 모든이들이 새겨놓은 메세지 인것 같다. 필동과 석장동에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

통약로 호기심

"아니, 웬 새내기 기초교양을 이렇게 늦게 하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지리교육과 학생회(회장=박준호)는 새내기를 위한 기초교양을 제도실에서 가졌다.

다 단대나 다른 여러 과들은 2월달 신입생을 맞이하여 이런 자리를 가지는데, '새내기'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이 5월 달에.

한 관계자에 의하면, "입학 후, 텔레비전 속의 대학생들을 꿈꾸다 막상 타치고 보니 회의를 느끼며 흥미도 떨어지는 듯 합니다"라며 후배를 생각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제도실에는 약 25명 정도의 1학년 학생들이 자리해 있고 줄 끝은 표정에 호기심 넘치는 눈빛을 가지고 있다.

"야, 5.18 항쟁이 뭔지 자세히 아나?"

"글쎄, 모래시계에서 약간 봤어"

"우리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처럼 노래를 배워볼까요?"

부드러워진 분위기에서 '사대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고사의 자질은 어떠한

것인지, 타 단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배의 설명과 함께 자료집을 읽은 후의 후배의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이 오고갔다.

첫째날은 사대 정상의 한층전에 관해 둘째날은 5.18 정과 6월항쟁의 역사성에 발제가 시행됐다. 특히 둘째날 5.18민중항쟁 설명이 시작되기 전에 비디오상영도 있었다.

조별로 행해진 본문의에서 1학년 학생들은 "이런 자리가 미리 마련되었으면 좋았을 걸요"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선배들은 "지금이라도 뼈속거리며 후회되는 삶을 보내지 말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배우라"며 격려를 해주는데 모습에 선.후배 간의 숨겨진 정이 새삼 느껴지고 있다.

내일(18일)은 5.18 15주기를 맞이하는 날이다. 5월 학살 진상규명, 학살자를 범적으로!!라는 플래카드를 붙여놓는데 그치지 보다는 자체한 설명과 이 해로 추모집회에 두손 잡고 참석하는 선.후배의 모습이 기대된다. (김은혜 기자)

95학년도 후기 각 대

대학원

(02)260-3093~4

-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단, *는 박사과정 제외
가.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사, 미술사, 철, 국민윤리, 교육, (*)한문,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농업경제, 지리학과
나. 이 학 계: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학과
다. 공 학 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전자계산학과
라. 자 연 계: 농, 임, (*)조경학과
마. 예 체 능 계: (*)체육, (*)미술, 연극영화학과
바. 의 학 계: 한의, 의학과
- 원서교부:** '95.5.29(월)~6.8(목)
- 원서접수:** '95.6.5(월)~6.8(목)
- 전형일시 및 장소:** '95.6.16(금) 10:00 동국관
-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영어(독해 4문항), 전공(공통필수과목), 구술고사(학과별실시)
나. 박사과정: 영어(독해 4문항), 전공(공통, 세부전공), 제 2외국어(불교, 인도철, 한의학과에 한함), 구술고사(학과별실시)

불교대학원(야간)

(02)260-3097~8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나.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다.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포교학
- 원서교부 및 접수:** '95. 6. 1(목)~'95.6.15(목)
- 전형일시 및 방법:** '95.6.22(목) 14:00 영어, 전공, 면접 (연구과정은 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관리자 과정도 동일) 조계종 재적승려 및 공무원, 교직원, 군인, 불교전문인인 소정의 장학금 지급.

관리자 과정(야간)

- 지원자격:** 조계종의 대덕 법계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원단체의 간부 및 대표, 신심이 돈독한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95.6.1(목)~6.15(목)
- 전형일시 및 방법:** '95.6.23(금) 13:00 서류전형 및 면접

행정대학원(야간)

(02)260-3101~2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행정학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관광행정, 언론홍보, 환경행정
나.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안보행정
다.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사법행정, 사경비
라.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복지정책, 복지사회, 통일정책
마. 북한학과: 북한경제, 북한행정, 북한사회, 통일정책
바. 지방자치학과: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재정, 지역개발
- 원서교부 및 접수:** '95.6.1(목)~6.12(월)
- 전형일시 및 장소:** '95.6.17(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행정학, 기술시험 및 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가. 공무원 전원에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함. (수업료 30%)
나. 우등장학금, 총장장학금, 동문회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이 있음
다. 사회복지전공 졸업자는 1급 복지사 자격증 취득

행정관리자 과정(야간)

- 지원자격:**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및 군의 영관급이상 장교, 정부부처기관 및 사기업체의 임원, 사회 지도급 인사,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95.6.1(목)~6.19(월)
- 전형일시 및 방법:** '95.6.24(토) 10:00 서류전형, 면접

경영대학원(야간)

(02)260-3105~6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경제학과: 산업정책, 금융 및 재정 전공
나. 무역학과: 무역이론, 무역실무, 무역보통 및 해운, 무역경영 전공
다. 경영학과: 조직 및 인사관리, 생산관리 및 계량경영, 마케팅, 재무관리, 국제경영 전공
라. 회계학과: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전공
마. 경영정보학과: 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
바. 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 전공
사. 부동산학과: 부동산 전공
- 원서교부 및 접수:** '95.5.24(수)~6.2(금)
- 전형일시:** '95.6.10(토) 14:00
- 전형방법:** 논술(경영학원론) 및 면접 (전공분야 5년이상 경력자 우대)
- 특 전:** 조계종 재적승려, 공무원, 교직원,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함

경영사과정(야간)

- 지원자격:** 기업체의 대표 및 간부, 사회단체의 대표 및 간부, 노조간부, 군 고위장교 및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95.5.24(수)~6.2(금)
- 전형일시 및 방법:** '95.6.10(토) 10:00 서류전형 및 면접

학술 단신

불교학술 발표회 열려

한국불교학회에서는 불기 253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53존불 조상 9종 8면탑의 사상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광사의 후원아래 학술 발표회를 오는 20일 천태종 삼광사에서 개최한다. 불교학술발표회의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53존불 신앙과 천태종의 관계=김연태(불교학)교수.
법화경과 탑사상=이영자(불교학)교수.
한국의 다라니서적 연구=홍윤식(역사교육)교수.
9종 및 8면탑의 한국불교사적 조명=채상식(부산대 사학과)교수.

5.18 광주민중항쟁 관련 국제 학술 세미나 개최

5.18 광주 민중항쟁을 국내외 학자들의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학문적, 이론적으로 재조명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23, 24일 양일간 사단법인 광주 사회조사연구소(소장=김순홍), UCLA한국학 연구소, 아이오와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주최로 정치, 사회, 역사학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 신앙과 문화의 일치문에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제학술회의는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5.18을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정치, 문화적 토대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비교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학술대회

해방50년, 분단 50년을 맞는 올해 한겨레신문사와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공동주최로 5월부터 8월까지에 걸쳐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을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달에 한번씩 정치, 사회, 경제, 종합 등 4분야로 나눠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발표 및 토론을 벌이게 된다.

지난 13일 정치부문을 본고 강정구(사회학)교수가 '민족과 통일'이란 주제로 발표하는 등 3편의 논문 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

이밖에도 6월10일 사회부문, 7월8일 경제부문, 8월12일 종합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사회부)

◇월간 말 주최 '통일시대 언론의 역할' 심포지엄

“보수제도 언론 틈속에 민중언론 없었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적대감지양·균형성 공정성 갖춘 정보제공해야

“지금까지 기자의 펜과 일은 통일에 역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언론에 몰래고 있는 기자들이 자신을 솔직히 검토, 반성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일 한국 언론 회관에서는 월간 말 창간 10돌 기념 심포지엄이 있었다. 월간 말 대표이사 노항기씨의 개회사로 시작된 강연회의 주제는 '통일 시대 언론의 역할'이다.

세계가 생산한 언론인 결 학자라는 사회가 이질적(문화일보 논설위원)의 소개를 받은 리영희 교수는 공자의 정명(正名)을 강조했다.

지록위마(지록위마)를 예를 들면 시작된 리영희 교수는 정명을 현대적인 논리학에서 모든 현상의 존재, 성격의 개념을 명확히 표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습기자 교육시 처음으로 주장했으며 신문기자는 국내의 정세를 다룸에 있어서 정확한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특히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트 집단인 언론기관은 도외기부시했던 북한 사회, 제도 및 인민 대중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며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와 함께 냉엄, 중추한 자기비판과 이성적, 논리적인 자세도 중요하다.

다음 발표자는 동아대 신광과 이범수교수로 '분단지향 언론과 통일 지향언론'이 그 주제이다.

“왜 분단지향적 언론일 수 밖에 없는가?”라는 큰 제목에 3가지 이유로 정리했다.

첫째, 보수의 맥이 형성되어 있다. 192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창간부터 이들



◇ 이번 심포지엄은 통일시대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것보다도 중요함을 느끼게 하는 자리였다.

두 신문은 반민중언론의 상징이었고 이는 기록관과의 유착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사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로 치달았다.

둘째, 보수세력의 주체가 되고 있다. 언론이 정치권력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세력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권력 기관화로 역사를 더 보수적으로 돌리고 있으며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 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도 태도가 보수적이다. 보도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점은 자본가나 권력층을 가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 관행에서 드러난다. 평화의 땅 보도로 국민학생의 코를 찌는 저급까지 빼앗겼고

광주 민중항쟁에서 시민을 폭도로 시민운동을 난동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이에 통일 지향적 언론을 위해서는 부정적 사색을 두고 이를 사회주의권만의 문제 혹은 북한만의 문제인양 보도하지 말고 객관성, 균형성, 공정성을 가지며 또한 정보를 내외 통신이 특종처럼 정확성이 결여된 오보 및 추측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언론이 지양해야 할 문제점을 제시했으며 언론은 기본적, 상식적 부분만 지키면 통일지향적 언론이 될 거라며 끝을 맺었다.

한겨레 신문의 김종철 논설위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언론과 통일'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의 지금과 같은 상황은 민족의 완전한 힘으로 해방된게 아니라서 그런 것이며 자주적 주장을 선포하는 언론기관마저 없었다며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민족일보 사설에서 약간이나마 다루었으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용기있는 발언과 체계적인 수업을 못하였다.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 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수시로 나타낸다. 주사파와 동, 조문논쟁, 핵관련 문제 등에서 증거와 논거없이 흥분한다. 앞으로 자본주의의 장점을 그대로 고수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바탕으로 언론의 민주화, 정치적 자주화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는 언론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족민주 언론의 부족함이 안타까운 일이라며 해직기자였을때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통일과 언론에 관심있는 이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며 고 문익환 목사 사모님과 민기협, 진관선님 및 삼한 통일 개발원등 재야 운동단체도 여럿 있었다.

언론과 김영삼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오고 갔으며 한 참석자는 "힘든 시대의 언론 주제로 활동하던 분들의 생동감 있는 경험담을 들으니 귀감으로 삼고 싶다"며 "우리 언론은 주변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며 일팔성 있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하며 발표를 즐겼다. (김은혜 기자)

특별면담

복지수동(?)



남선

언제부 터인지 우리 사회는 자국에 대해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평에 대해 무관심하다. 대통령이 이 세계화를 한다 해도 늘 하던소리 단어만 바뀔뿐이며 냉소적이다. 시류에 가장 민감하다는 증권 시장마저도 대통령이 각료들과 함께 국내 자본재시장을 활성화한다고 결정해도 지수의 숫자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흔히들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탄하면서도 이 말자체도 그 심각성을 알고있는 것이 요즘인 것 같다. 왜 그렇게 됐을까. 불신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책임은 국민전체에 돌아갈 것이고 위정자들은 이를 문제삼아 근사한 자리에, 나의 향기 호소한다. 그러나 이런말들이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봐야하고 그 원인은 좀더 깊숙한 곳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곳은 많은 이들이 아직 3류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치권이라고 할수 있다. 적어도 국민의 대표라는 이들이 공공자 공약을 남달리고 깨끗한 정치의 확산인양 사자후를 토하면서 두면에서는 돈봉투를 돌린다.

결국 여기저기 쌓여진 성들은 단절로 발전되고 결국이 사회 전체가 이기주의라는 세트로 꾸며진 총악한 괴물로 변모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단절의 성들을 가장 쉽게 읽을수 있는 것이 얼마전부터 복지수동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공무원들이다. 이해를 해주지않는 사회에서 잘못 움직이면 나만 손해라는 공무원들의 무소신주의...새정부 들어서 세간의 신문을 장식하던 이런 단어는 복지안동(배우고 누워서, 눈치만살피는)으로 발전하더니 요즘에는 복지수동까지 갔다고 한다.

이제 며칠 안있으면 선거를 한다 한다.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대표를 뽑는다는 선거라고 한다. 벌써부터 O.O산악회나 O.O재단이나 향우회나 동창회로 전국이 술렁이고 있다. 그리고 이듬해 한류 잠잠다는 모리배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도 주위에서 쉽게 보고 있다. 선거 사바를 얹단한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그 말은 이미 신뢰를 잃다보니 모리배들의 극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투표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이다. 신뢰를 잃지 못하는 이들이 지도자일 할 수 없는 사회를 위해 민주주의의 핵무기를 사용할 때가 온것 같다.

불교방송 기자

과학에세이 전자 출판

동아리 소식지·과홍보지 등도 전자출판 결과물 포토스타일러로 사진 마음대로 조작 가능

요즘 전자출판에 대해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전자 출판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것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10년전인 85년에 엘더스사의 사장인 Patal Brainerd에 의해서 정의 되었고 이는 요즘에 의서는 누구나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실지 동아리나 과홍보지를 제작할 때 다 컴퓨터로 하고 이를 복사기로 복사해서 나누어 지지 않는가. 이런것도 전자출판이다.

만약 10년전이었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일반인으로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갖출것만 갖추면 누구나 신문을 만들수 있고 화려한 출판물을 만들수 있다. 여기서는 IBM 기종에 관해 소개해 보겠다.

하드웨어로는 컴퓨터(386이상) 그리고

8메가 정도의 것이 필요하다. 램이 8메가가 아니라면 추가하도록해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램이 부족하면 실행이 안된다 그리고 스캐너가 필요한데 이는 사건등을 입력받아서 필요한 것이다.

개인이 구하기 쉽고 싼것으로는 핸드 스캐너(혹은 그래픽) 정도가 있으면 되는 데 15만원 정도만 구할수 있다. 그리고 프린터(360PP이상)가 필요하다.

요즘은 스캐너 빼고는 누구나 가진 듯하다.

이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소프트웨어인데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 글꼴쓰고 사건을 처리하고 그림을 그릴수 있는 이세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모든것을 배워주고 처리하는 페이지 레이아웃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비싼데 우선 추천해주고자 하는 것으로는 엘더스사의 페이지 메이커이다.

세로쓰기 기능등 DTP에 필요한 모든것이 거머지 지워진다. 그리고 오프 페이지가 있는데 이전에는 사진이 칼라 출력 출력 안되고 여러가지가 안됐으나 요즘에 최관안이 나왔는데 이는 거의 모든 것(일반신문)을 자신이 직접따라하며 할수 있다.

지금 천리안에 이것이 공개관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용 서체의 갯수에만 제한이 있을뿐 사용 기능은 상용과 똑같다.

한편 만들어 보시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아예 한글 이또한 DTP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3.0까지 나왔는데 세로쓰기, 문자회전등이 안되나 웹만

한 것은 다된다. 그리고 사건처리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스타일러와 포토샵이 유명하다.

그리고 사건처리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스타일러와 포토샵이 유명하다. IBM에서는 사진을 자기대로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는 프로그램으로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어도브 일러스트라이터가 유명하고 일러스 프리핸드 그리고 강함것으로는 코랄드로우 등이 있다.

주변에 친구들에서 프로그램을 얻어 보라. 그리고 실지로 멋진 출판물을 만들어 보라.

양종호

(공과대 전자공학과-자연과학연구회)

학원 신입생 모집

<p>교육대학원(야간) (02)260-3109~10</p> <p>1. 모집과정: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 전공 나. 교과교육학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윤리, 철학, 미술, 한문, 체육, 영어, 물리, 화학, 생물, 가정, 전자계산, 종교, 중국어교육 전공</p> <p>2. 원서교부 및 접수 '95.5.22(월) ~ '95.6.2(금)</p> <p>3. 전형일시 및 방법 '95.10(토) 14:00 서류전형, 면접 및 전공수술시험</p> <p>4. 특전 가. 공사립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공무원, 조계종 재직승려 등에게 장학금 지급. 나. 공사립교육기관의 재직교사, 정부행정기관 재직자는 경력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평점시 가산점 부여</p>	<p>정보산업대학원(야간) (02)260-3113~5</p> <p>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정보관리학과: 정보관리전공 나.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전공 다.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 출판잡지전공 라.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마.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 전공</p> <p>2. 원서교부 및 접수: '95.5.29(월) ~ '95.6.9(금)</p> <p>3. 전형일시 및 장소: '95.6.17(토) 14:00 본 대학원</p> <p>4.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전공필기시험(정보관리, 전자계산학과: 컴퓨터개론, 신문방송, 광고홍보학과: 논술고사,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개론) 및 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p> <p>5. 특전 가. 언론인, 공무원, 교직원, 군인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 나. 해당분야 경력자는 우대함.</p> <p>정보산업관리자 과정</p> <p>1. 지원자격: 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군인, 사회단체의 중견관리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p>	<p>산업기술대학원(야간) (02)260-3722~3</p> <p>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정보관리학과: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건설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식품공학, 산업공학, 농림자원전공</p> <p>2. 원서교부 및 접수: '95.5.31(수) ~ '95.6.14(수)</p> <p>3. 전형일시 및 방법: '95.6.17(토) 14:00 서류전형, 면접</p> <p>4. 특전 가.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중견간부와 장기 실무 경험자는 전형시 우대함 나. 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가산업체 및 유수한 기업체 중견간부에게는 각종 장학금을 지급함</p> <p>산업관리자과정(야간)</p> <p>1. 지원자격: 공, 사기업체 임원 및 중견간부, 고급 공무원 및 장교, 개인사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과 동일</p>	<p>문화예술대학원(야간) (02)260-3606~7</p> <p>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전공 나. 연극영화학과: 공연예술, 영상예술 전공 다.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 불교음악, 문화재전공</p> <p>2. 원서교부 및 접수: '95.5.29(월) ~ '95.6.9(금)</p> <p>3. 전형일시 및 방법: '95.6.17(토) 10:00 가. 석사과정: 필기시험(논술) 및 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p> <p>4. 특전 가. 각종 장학금 지급 제도 있음 나. 해외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p> <p>문화예술관리자과정(야간)</p> <p>1. 지원자격: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본사 주주급 스님, 언론·문화·예술 및 유관기관의 임원, 기업체 임원, 사회지도급 인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p>	<p>지역개발대학원 (경주캠퍼스: 야간) (0561)770-2092~3</p> <p>1. 모집학과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가. 개발행정학과: 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사회개발 나. 지역경제학과: 지역경제개발, 산업경영</p> <p>2. 원서교부 및 접수: '95.6.5(월) ~ '95.6.15(목)</p> <p>3. 전형일시 및 장소: '95.6.17(토) 14:00 본대학원(경주캠퍼스 진흥관)</p> <p>4.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논문, 서류전형, 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면접</p> <p>5. 특전 가. 기업체, 정부부서 실무경험자 전형에서 우대 나. 공무원 전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수료료 30%) 지급</p> <p>관리자과정(야간)</p> <p>1. 지원자격: 정부 각 기관의 관리자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사기업체의 간부, 공공 및 사회단체의 간부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p>
--	--	--	---	---

에이즈 감염, 초기는 독감 증상만 보일뿐

성병증세 초기엔 못느낄수도 있어

성낙진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성병은 주로 성교로 인하여 전파되는 질환들을 의미한다. 매독, 임질, 연성하감, 서해부 육아종, 성병성 임파육아종, 비인균성 요도염, 음부포진, 칸딜로마, 전염성 연속종, 트리코모나스증, 칸디다증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매독, 임질, 그리고 최근에 각각(?)을 받고 있는 AIDS, 성병이 의심될 시의 처치와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매독은 감염 20여일 정도에 성기 및 주위에 궤양이 발생한다. 이를 연성하감이라 한다. 이 때가 1기이다. 방치하면 1~4개월 후에 국소병변은 자연소멸되며, 매독진이라는 발진이 나타나는 2기, 잠복기를 지나 제 3기 매독, 내부장기 매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임신부가 매독일 때에는 태아도 선천성 매독에 걸릴

수 있다. 임질은 주로 남성에게 증상이 심하고 여성에서는 90% 정도에서 증상이 없다. 성교후 3~5일후에 요구에 불쾌감 및 소변을 볼시에 따끔 따끔함을 느끼고, 진한 화농성 요도분비물이 나온다. 부고환염, 요도염, 전립선염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다. 최근에는 임질보다는 증상이 가볍고 늦게 나타나는 비인균성 요도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잦은 재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70%가 이상간 성접촉에서, 20%는 동성연애자에서, 나머지 10%는 수혈, 마약 또는 혈액제제를 통해서 감염되었다. 산모가 감염시에는 신생아의 15~20%에서 감염된다. 감염되어도, 수주 후에 일부에서만, 심한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느낄 뿐이기에 수년간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정상이나 특이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러나, 8~10년이 지나면 각종 심한 감염증과 악성종양이 나타나서 약 2~3년 후에 죽게 되는 병이다. AIDS감염자는 빠르면 6주후에, 늦어도 6개월후에는 항체검사서 양성반응을 보인다.

성병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보건소나 병, 의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필요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디에서든 개인이나 비밀은 반드시 보장된다. 그러기에, 속스러워서 혼자 고민하거나, 정확한 진단없는 약복용으로 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성병치료는 보건소에서는 무료이다.

성병도 가능하리만 예방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무분별한 성접촉이나 마약사용과 같은 정상생활을 벗어난 생활을 피하는 것이 첫째이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현시점에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예방법은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공통주제 성병

양매창·음식창등 동의보감에 기록돼

치료보다 예방에 힘써야

신홍목

(한의대 한의학과 교수)

성병이란 성교로 인하여 전파되는 질환들을 말한다. 성교는 생식의 수단으로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일상생활로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성으로 인한 질환 또한 일찍이 인식이 있었으나 한의학적으로 성병은 음부소양증을 대표하는 음양(陰陽)과 음부궤양을 대표하는 음창(陰瘡)으로 개괄되는데, 생리중 성생활이나 불결한 성생활에 의하여 감염되며 오늘날 성병방풍조의 만연으로 성상대자의 수와 성접촉 횟수의 증가에 근원 원인이 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성병은 양매창(楊梅瘡), 음식창(陰蝕瘡), 무정창(妬精瘡)으로 구분되는데, 양의학적으로 대표적인 성병은 매독, 임질, 연성하감, 음부포진, 질트림코모나

스증 등이 있다. 양매창은 남어의 성교로 인하여 전염되며 증상은 원인에 따라 홍색 구진이 생겨 발생부위가 넓고 통증이 있고 가렵다든가, 주위 표면보다 움기되어 장악이 상출된다든가, 피부의 접착에 광범위하게 다양한 발진이 발생한다든가, 근육이나 골조직에 단단한 결절을 동반한 동통이 발생한다든가하는 비교적 상세한 증상의 기록은 곧 매독의 임상증상을 표현하고 있다.

음식창은 그 증상이 음경에서 고환까지 붓고 아프고 소변이 쪼글쪼글 자주 마렵고 잘나오지 않으며 배뇨통이 있다. 또 오래되면 혈고 침식되어 농혈이 그치지 않아 괴양을 형성하는데, 곧 임질이나 연성하감을 말하는 것이다.

음정창은 가렵고 창이 썩고 질은 윤으로 장악이 상출하는 것이 음과 같은데, 음부포진의 증상과 유사하다.

무정창은 음부에 썩살같은 창이 생겨 발적이 나타나며 붓고 궤양을 형성하는데, 곧 연성하감이나 매독의 여러가지 하감증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병은 아무리 사회가 개방되고 자유롭다고하더라도 수치스러운 것 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치료보다는 예방에 힘써야 한다.

예방은 쌍방의 혼외정사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의 위험을 인식하고 위생상태의 개선과 성생활에 있어서의 절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단 성병이 감염되었으면 수치심에서 감추거나 전문의나 의사의 지시없이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행위는 금기되어야 하며 충분한 진찰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중 성병으로 가장 무서운 질환이라 할 수 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제3회 젊은연극제 참가작품 '플레이'를 보고

항아리에 몸담고 머리만 보여

인간 해체과정에서 최후의 부분 표현

인물에 생명력 부여하는 조명 주목돼



◇ '플레이'는 등장인물들이 풀어내는 이야기는 있으나 서로의 관계는 얽고 없고 그들이 뱉어내는 언어를 음향으로 처리한 실험극이다. 사진은 작품의 포스터.

사실 별로 자신이 없다. 제3회를 맞는 '젊은 연극제'를 준비한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의 맑고 눈물을 제대로 보았을지는, 그들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놓칠까 걱정스러워 무대에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않았지만 말이다. 보고, 한양대, 중앙대, 단국대, 경주대, 경상대의 6개학교 연극과 학생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젊은연극제는 참여하는 학교가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고 연극과 참여작품 사무실 배너의 '플레이'는 지난 14, 15일 양일간 3회 공연되었다.

부조리극의 대가인 사무엘 베케트는 무대 위의 다양한 실험으로 유명하다.

잠깐 부조리극이 뭔가를 알아보자. 부조리극은 연극이 끝나고 나서 관객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만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슬프게도 반복되는 일상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왜?'라는 물음을 가지게 되는 인간 내부의 목소리에 충실하다. 이 반복을 일부의 극에서는 무의미한 동어반복으로 또는 행동의 반복으로 표현하는데, 관객들은 지루함이나 어리둥절함을 느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부조리극은 60년대 이후 단명했으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으로 유명세를 떨친 베케트를 정복할 만한 연극무대는 아직 없었다고들 하니 아주 아쉬운 일이다.

'플레이'는 부조리극이 흔히 그렇듯이 등장인물들이 풀어내는 이야기는 있으나 서로의 관계는 얽고 없고 그들이 뱉어내는 언어를 음향으로 처리하는 실험극이다. 사진은 작품의 포스터.

뜻이 등장인물이 풀어내는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인물들에게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이고 귀기울여야 할 것은 던져지는 대사의 내용이다. 이어나 그것들이 모여져 이복내는 음향이다. 곧 말이 아니라 소리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표현하는 다량적 첫바퀴인듯한 무대장치, 마치 관객들을 쳐다보는 것같은 커다란 눈인듯한 또하나의 무대장치도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 설정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사색이지만, 한 아이가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연극포스터를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연극과 무수상관이 있는 내용이었지만 커다란 오산이다.

흔히들 과장된 행동을 보일때 '연극같다'라고들 하는데, '플레이'에서는 배우들의 움직임이 전혀 볼 수가 없다. 조명이 자신에게 비추어질때 바짝 고개를 들고 자신의 에기를 하는 모습과 목의 움직임밖에 배우들의 머리를 제외한 신체는 항아리 안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실 알 필요도 없다. 머릿만 보여지는 이유는 인간의 해체과정에서 말, 생각과 함께 최후로 남는 것은 머리일뿐이라는 의도라고 한다.

정통극에서 조명이 하는 역할을 화려하게 움직이는 배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플레이'에서는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부여하며, 의식의 유무를 관객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남자(M), 여자 1(W1), 여자 2(W2) 세명의 등장인물은 각각 그들의 위치를 표시한 스포트라이트에 불이 켜질때만 말을 한다. 즉 생명력을 부여 받는 것이다.

등장인물 세사람이 각각 들려주는 이야기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배우와 정부가 벌이는 신경전, 그 남자의 갈등상태등 이 세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는 듯해 보이지만 이러한 추측이 옳다라는 뒷받침은 없다. 이 사람들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항아리에 목이하의 신체 대부분을 감추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시선은 서로를 쳐다보는 일이 없이 관객들만 응시하고 있는데, 세사람이 서로 대사를 주고 받는듯 하지만

달 하나 천 강이

올바른 통계적 사고의 필요성



말만 섞간으로 발행되면 어느 중앙일간지가 조간으로 바뀌면서 요즈음 신문의 재장형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물론 조사결과가 이 신문사에 유리하게 나왔으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신문사들 사이에 막후 대화로 일단락 되기는 하였으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특정 계층을 표본으로 선택했다는 데 있었다. 최근에 창간된 어느 패션관계 여성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은 그들 세대에 일맞는 집지의 형태로 패션잡지를 읽었다고 한다. 압구정동이나 명동 핫플로에서 몇몇 오랜 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법한 이 결과가 공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통계수치를 이용하고 있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주장하고자 하는 말의 첫머리에 '통계적으로...'라는 문구가 붙으면 더 믿음직스럽고 권위를 인정받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논리의 대상이 되는 일반인들이 흥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통계수치들의 참과 거짓을 분별해 내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도 학생들이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끔 나도 어느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선정되어 설문에 응답할 때가 있다. 이때,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의 내용을 보면 사전에 이에대한 교육을 받은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그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는 문항도 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조사의 표본으로 선택되었는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대개 빈도분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강의하기 위해 경우관례에서도 교양과목으로 '일반통계학'을 개설하고 있으나 몇 년째 수강생들의 수가 기준에 미달하여 폐강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교양과목이면서 여가활동이나 스포츠와 관련된 과목에는 수강생들의 숫자가 몇 백명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그런 분야도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고 신문지상에 매일같이 발표되는 수많은 통계수치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통계지식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벌써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공문에 접하고 느끼는 단상이다.

심규박 자연과학대 전산통계학과 교수

자세히 보면 자신에게 조명이 쏟아질 때면 떠드는 독백일 뿐이다. 그 뿐 아니라 서로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한다.

또하나 '플레이'에서는 A효과(소외효과)를 찾아볼 수가 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는 대신 관객들에게 '내 얘기를 듣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 상황은 연극이므로 곧 끝날리라는 말을 던지기도 한다.

연극 안에서 생겨나고 해결해야 하는 갈등이 부재하고 처음과 똑같은 상황으로 끝을 맺는 순환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플레이'는 시종 아슬아슬한 무대 신경질적이며 뻔하거나 서로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한다.

작품을 나름의 의도로 분석한 연출의 시각, 1시간 동안 항아리 속에 앉아 열연을 한 배우, 그리고 울려진 막 뒤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스태프들 모두 그들의 '젊음'을 무대에 울렸음을 극을 이해하지 못한 관객들이라도 그것 하나는 정확히 느꼈으리라 믿는다.

(이유리 기자)

SKC 플로피디스크

감사대축제

고품질의 SKC 플로피디스크로
행운의 선물을 받으세요.

10배 보상제도, 데이터복원 서비스 등
획기적인 고객서비스로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SKC가 고객 여러분의 정성에 보답하고자
부족한 선물을 드리는 감사대축제를
실시합니다.

2등
500명

1등
200명

* 응모권이 들어있는
새한 행사용 SKC 플로피디스크

SKC 2HD

5.25" 2HD

SKC 3.5"

3.5"

SKC 2HD

5.25" 2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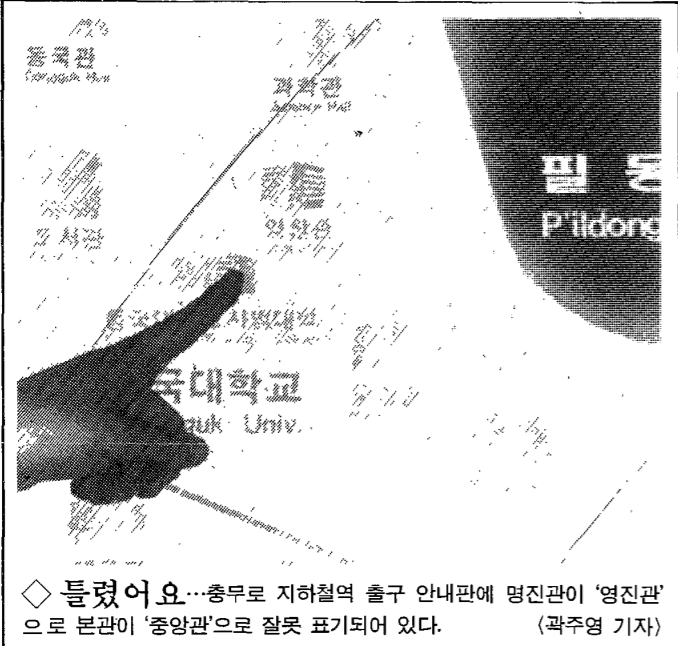
* 응모요령

SKC 플로피디스크(5.25" 3.5")를 구입하신 후
패키지 안에 동봉된 행사 응모권을 무인입력하여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행운의 경품을 드립니다.

- 응모기간 : 1995.5.27~6.15(20일간)
- 보낸날짜 : 무인입력용 (1995.5.27일경)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99-15
SKC(일명)FD문책
- 당첨자발표 : 이틀간 7회
- 무인입력용 : 보낸날짜는 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주세요.
- 응모권 필요요 : 없음
- 1등(200명) : 다자원이 협력한 고급 백패
- 2등(500명) : 고급 컴퓨터 액세서리
- 문의전화 : (02)756-5151, 6161(교한 3717~9)

* 컴퓨터 액세서리패키지
· 디스켓클레이더 · 에로크리터
· 멀티공분배 · 보안링
· 마우스패드 · 카피틀러

SUNKYON 鮮京 그룹



◆틀렸어요...총무로 지하철역 출구 안내판에 명진관이 '영진관'으로 본관이 '중앙관'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곽주영 기자)

노조, 임금협정 체결

임금 8%인상, 각종수당조정

직원노조(위원장=김윤길·개교1백주년사업본부)는 지난일에 열린 총회에서 5차교섭까지 진행된 '95년 임금 및 단체교섭 내용이 통과되어 임금협정을 지난 4일에 체결했다. 임금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임금 인상율은 8%로 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5%인상분을 지급하며, 2차액 3%는 12월에 일괄 지급한다. 또한 각종 수당 조정은 다음과 같다. △장기근속수당은 6만원(5년이상), 8만원(10년이상), 10만원(15년이상), 12만원(20년이상)으로 2만원 편차로 조정 △효도수당 20만원은 효행 장려를 위해 김장수당을 조정하여 추석 직전에 지급하며 기차수

당의 세부사항은 95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6차 단체교섭은 내일(18일) 오후 4시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리며 최종 점검·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교섭회 세미나 개최 24일 '영화의 이해' 주제로 본교 교수협의회(회장=박강식·경제학)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연영과 소극장에서 '영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영화 '오발탄' 상영 이후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세미나엔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월간 5백여만원 비용절감

관제과(과장=허정운)는 지난 15일 학생회관 앞동 건물내의 10여곳에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종이류의 4개로 분리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분리수거함 설치계획은 올3월부터 논의되었으며 분리수거가 제대로 시행될 때에는 자판기 앞을 비롯한 각 층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분리수거가 잘 되면 분리수거물을 재활용장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월간 5백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한편 자원 재생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미관도 고려해 분리수거함 주위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확대식당 앞에 설치할 수거함도 통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종이류등 가연성 쓰레

기는 자체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운동장 화장실 뒤쪽으로 소각로를 6월중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설치된 쓰레기분리 수거함에 관한 안내와 홍보가 적절히 되지 않아 분리수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재직동문회 장학금 전달 재직동문회(회장=이종찬·국문학)는 95학년도 1학기 동국대 재직동문회 장학생을 선정해 지난 12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학기 장학생으로는 사범대 교육학과 허길희 학생이 선정됐으며 이에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취업대비 인·적성 검사 실시

본 연구소에서는 현재 국내 우수 기업에서 사원선발시 활용하고 있는 최신 검사지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대비 인·적성 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교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1. 검사종류 : 취업대비 최신 인·적성 검사
2. 접수일자 : 1995.5.22(월)~5.29(월)
3. 검사일자 : 1995.6.2(금) 오후 4:00~5:00
4. 비 용 : 검사비(학생부담) : 1,000원
검사해설 및 상담 : 무료

*본 연구소(접수처)(교수회관 3-1호, 전화 3506)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1995. 5. 16

학생 생활 연구 소장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행사

책임자 처벌 총투표·1만 동약결의대회 기획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는 서남총련이 주최하는 '5월 학살 책임자 전두환, 노태우 사법처리를 묻는 서남총련 대학생 총투표'를 지난 16일부터 오늘(17일)까지 교내 곳곳에서 실시한다. 부총학생회장 곡유찬(아간강좌영문4)군은 "학우들의 의식흐름을 5·18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각 건물마다 5·18영령들을 위한 분향소를 설치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내일(18일) 분향소에서 '광주항쟁 정신계승 및 학살자 비호하는 김영삼 심판을 위한

1만 동약결의대회'를 가진다. 이날 집회는 △오일영령 천도제 △애국애 △광주항쟁의 현재적의의 △김영삼정권에 대한 규탄발언 △5·18과 통일에 대하여 △실천투쟁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관위 운영위원회의 규정개정안등 논의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화 공관위)는 지난 12일 운영규정 개정안, 명진관 매점 임찰안, 컴퓨터 매점 임찰안, 감사문제등의 안건으로 운영위원회의를 열었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통과로 공관

위 운영규정은 3회의 수정을 마치게 됐으며 명진관 매점 임찰안은 다음주 내에 위원장의 공사일정 내용의 확인요청이 있을것이며 그 결과로 재논의 하기로 했다. 또한 컴퓨터매점 임찰안은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감사안건에서는 △감사위원장은 김진철(공관위 위원장) △교수회대표=윤종안(한계학) △직원 대표=정경준(공보부) △학생 대표=서동욱(경상대 학생회장)의 감사위원이 선임됐으며 대학원 대표는 회계학과 학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제1회 회의를 김진철교수 연구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각 단위 대동제 준비 한창

기획거리·놀이마당 등 25일까지 다양한 기획구상

문과대 문과대 학생회(회장=좌수일·국문3)에서는 대동제 기간동안 통일열매놀이, 기획전, 사진전 등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중이다. 통일열매놀이는 모든 명진인이 함께하는 자리로 각과 단결을 최대의 목표로 하며 기획전에서는 서울시 장후보들의 약력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학생회장 좌수일군은 "정원사, 조순, 박찬중 세후보의 모습이 밝혀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획전을 소개했다. 그의 학자부사진전과 한총련사진전을 갖고 분상위에 한반도 단일기 그림은 그릴 예정이다.

동아리연합회 (회장=김용욱·화공4)는 대동제 이름을 '아우라지제'로 하여 각 동아리인들과 동연이, 그리고 동아인과 동아리인들이 서로 어울려 하나임을 느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다양한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전체 기초를 살펴보면 △재미있으며, 누구나라도 밟고 뛰어들 수 있는 게임 전개 △생활공동체인 동아리인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놀이문화제 △민중연대의 참의미를 되새기는 장 등이다. 사업 및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 23일은 △강연회=세상건기 △아의 영회제=일본문화 영화 '아기라이다. 둘째날 24일은 1부 놀이마당(오후 2시~6시)에서 △김영삼 일간편지'로 하여 각 동아리인들과 동연이, 그리고 동아인과 동아리인들이 서로 어울려 하나임을 느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다양한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전체 기초를 살펴보면 △재미있으며, 누구나라도 밟고 뛰어들 수

있는 게임 전개 △생활공동체인 동아리인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놀이문화제 △민중연대의 참의미를 되새기는 장 등이다. 사업 및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 23일은 △강연회=세상건기 △아의 영회제=일본문화 영화 '아기라이다. 둘째날 24일은 1부 놀이마당(오후 2시~6시)에서 △김영삼 일간편지'로 하여 각 동아리인들과 동연이, 그리고 동아인과 동아리인들이 서로 어울려 하나임을 느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다양한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전체 기초를 살펴보면 △재미있으며, 누구나라도 밟고 뛰어들 수

사범대 학생회(회장=조현중·국교4)는 대동제 기간을 '참교육주간'으로 정하고 여러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사범대 학생들이 모두 접하고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영화상영, 사진전, 교육거리, 예비교사 한마당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간강좌 아간강좌총학생회(회장=황인구·영문3 이하 아중)는 '95 목매대동제! 통일열년을 달음치는 아우라지제의 몸짓으로 생동하라'는 기조아래 대동제를 치를 예정이다. 일정은 △23일=아마당, 학술문화거리놀이마당 △24일=분마당, 함양의 뽀네기 한마당 △25일=실천마당, 미래내갈 사랑의 날을 갖게 된다. 첫날 학술문화거리놀이마당에서는 북한거리, 반도체거리, 광고한마당 등 아중의 다양한 화과들의 거리마당과 사진전이 있고, 분마당에서는 각 과별 참가자 및 노래소모임 등의 발표장으로 최대한의 재미와

사범대 학생회(회장=조현중·국교4)는 대동제 기간을 '참교육주간'으로 정하고 여러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사범대 학생들이 모두 접하고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영화상영, 사진전, 교육거리, 예비교사 한마당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간강좌 아간강좌총학생회(회장=황인구·영문3 이하 아중)는 '95 목매대동제! 통일열년을 달음치는 아우라지제의 몸짓으로 생동하라'는 기조아래 대동제를 치를 예정이다. 일정은 △23일=아마당, 학술문화거리놀이마당 △24일=분마당, 함양의 뽀네기 한마당 △25일=실천마당, 미래내갈 사랑의 날을 갖게 된다. 첫날 학술문화거리놀이마당에서는 북한거리, 반도체거리, 광고한마당 등 아중의 다양한 화과들의 거리마당과 사진전이 있고, 분마당에서는 각 과별 참가자 및 노래소모임 등의 발표장으로 최대한의 재미와

김규석교수 학술상 수상

김규석(건축공학)교수는 지난 4월29일 한양대에서 열린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술발표회

본교 김영태(불교학)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불교학회는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춘계 불교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오는 20일 부산에 있는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에서 열리는 이번 발표회의 주제는 '53존불 조상 9종8면탑의 사상사적 의의'로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김영태(불교학)교수=53존불 신앙과 천태종의 관계 △이영자(불교학)교수=법화경과 탑 신앙 △홍운식(역사교육)교수=한국의 다면 다층적탑 연구 △이상 식(부산대 사학)교수=9종 및 8면탑의 한국불교사적 조명.

서시험 27일 출범

서울지역 사범대학대표자 협의회와 전국 사범대 연합이 서울대에서 오는 27일 오후6시에 공동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28일 전국교사대회가 한양대에서 열린다.

1/4 감사 20일까지

총대의원회(의장=박대용·불교4)는 상반기 주요 사업의 하나인 1/4분기 감사를 총학생회특별기구인 학생복지위원회,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중앙교과과정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총대의원회는 지난 4일 '1/4분기 중앙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9일 각 단위에 공문과 감사사업 계획서 전달 △11일 의의신청 접수 △15일 감사자료 접수를 거쳐 오는 19일 오전 10시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중앙교과과정위원회, 오후 2시 학생복지위원회, 20일 오전 10시 교지편집위원회를, 오후 2시 졸업준비위원회를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국장 김방욱(아간강좌 영문4)군은 "이 시기는 각 단위 일꾼들이 지쳐 사업에 소홀해질 때"라며 "이번 감사가 각 단위 일꾼들의 재정의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학생복지위원회는 감사일정과 사업일정이 겹쳐 감사연기를 신청했다. 또한 교지편집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지편집위원회는 총장직속기구이므로 학생감사조직인 총대의원회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총대의원회측에 전달했다.

이에대해 총대의원회측은 교지편집위원회와 이견을 좁히고 있으나 감사를 한다는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어 교지편집위원회가 감사거부를 계속 주장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전·무·대

교원 참사(?)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금, 급기야 동국관에서도 대참사의 예고편이 시작되었다는 데, 동국관 4층 일부 복도를 매운 원인 모를 자욱한 연기를 공포를 자아내기에 충분, 사건의 주범은 분리수거를 위해 학생회실 앞에 비치된 신문수거함에 떨어진 담배꽂이로서, 분리수거의 번거로움을 덜고자 소각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가속발을 떠올리며 한학우 왈 "어전혀 진행형인 대참사 앞에도 공색하기만한 'YS형 인간'이 동국관에도 있는 모양"

교육개혁

○...교육개혁=언 바다에 불바람. 신록의 날 5월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새 교육부 장관께서 그동안 미뤄왔던 교육개혁안을 발표한다. 사실상 교육열 놓고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지출되는 모양. 그러나 실상 국가가 책임질 교육개혁은 기존에 따라가려만 아직 요원하다는데. 이에 회전문대자 한마디 "이제까지 교육개혁안인 걸만 번지러한 뿐(?)카드가 과연 이런 교육개혁은 조카가 될 수 있으리진..."

별 걱정

○...대운동장에서 백삼기 야구대회 결승전이 열려 간혹 열을 몰리고 있는 가운데 모서리를 살펴서 비집고 들어온 이를 모를 축구하는 학생들이 점점 운동장 가운데를 점점하는 양 체(?)사건이 발생했다던데. 지나가던 학생들은 한 운동장에서 두종목의 운동경기가 열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

한 운동장을 돌이 쓰는것을 본 야구운동장중 한명 "야구선수 공을 잘못 구별해 축구공이라도 치면 어전담"이라며 불메인 한마디.

아싸! 살벌

○...아싸! 놀알 뽀아 "아싸! 심장 찢어" "아싸! 배-찌"와 같이 듣기만 해도 심즉한(?) 말이 건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려는 모교지리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우는 부담없이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 위해선 이와같은 표현이 필요하다고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재미도 재미나름이지만 사람을 오빠하게 하는 언어를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자칭 언어론자 왈 "아-싸! 살벌해"

'통일방안 대토론회'

통일원년을 맞아 통일운동을 실제화시키기 위해 통일의 과정과 통일국가 수립을 밝히는 통일방안을 논의한다.

일시: 5월 23일 늦은 4시

장소: 학림관 소강당

토론참가자: 사회-강정구(사회학과 교수)

발제: 이선태(기사연 수석연구원)

토론: 고유환(안보연구소, 정외과 교수)

최 성(아태재단)

조성범(전국연합)

정태홍(한총련 의장)

주최: 제27대 총학생회

후원: 동대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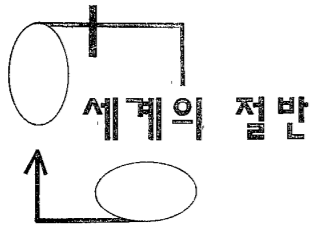
통일시화전

통일시화전이

5월23일~25일 계산관 2층

여학생 휴게실에서

개최됩니다



⑤ 여성적 글쓰기: '하얀 잉크'로 쓴 글

하얀 잉크, 무한하고 유동적인 여성 글쓰기 상징

여성적 글쓰기(women's writing)란 과연 무엇인가?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슬한 정의에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특징을 지닌 어떤 종류의 글인지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여성주의자 일레인 쇼월터가 내린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성의 억압적 경험과 그에 대한 항의를 여성 작가가 쓴 글'이라고 하였다. 실존적 사회주의자 안토니오 그람SCI는 '작가의 성에 관계없이 여성의 지위항상을 주내용으로 한글을 여성적 글쓰기로 본다. 한편 엘렌 씨수스를 비롯한 프랑스 여성주의자들은 주변화된 여성의 경험을 폭로하여 가부장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파괴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측면보다는 남성과 다른 여성 특유의 글쓰기 미학을 창출하려 한다.

그런데 그녀의 글을 받아본 어느 조그마한 출판사의 일고 제재 거절의 변은 다소 엄중했다. "주부들의 관심을 끌려면 보다 상세한 육아일기를 요함"의식의 흐름 수법을 비롯해서 여러 시시적인 기법을 사용한 글 중간에 아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일기형식으로 쓴 부분을 보고 육아일기로 단정된 출판사의 물상적인 감별력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또다른 출판사의 거절의 변은 그나마 글의 줄거리를 파악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본적 페미니즘 소설로는 억부족, 치열한 갈등묘사와 극적인 내용이 필요"그후 몇번인가 출판사의 문을 두들겼지만 아예 반응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복되는 좌절을 통해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진리, 즉 자기적인 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은 잉크'를 사용해야한다는 사실을 터득했다. 그래서 그녀는 좀더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묘사를 요구하는 출판사의 구미에 맞게 자신의 억압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극화시켰고 어느 날 마침 만족해하는 출판사 사장의 전화에 이어 얼마후 그녀의 투쟁사는 '본적 페미니즘 소설'이란 부제가 새겨진 조잡한 색깔의 표지로 장식된 채 담당하게 서점 진열대에 올려져서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글을 받아본 어느 조그마한 출판사의 일고 제재 거절의 변은 다소 엄중했다. "주부들의 관심을 끌려면 보다 상세한 육아일기를 요함"의식의 흐름 수법을 비롯해서 여러 시시적인 기법을 사용한 글 중간에 아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일기형식으로 쓴 부분을 보고 육아일기로 단정된 출판사의 물상적인 감별력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또다른 출판사의 거절의 변은 그나마 글의 줄거리를 파악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본적 페미니즘 소설로는 억부족, 치열한 갈등묘사와 극적인 내용이 필요"그후 몇번인가 출판사의 문을 두들겼지만 아예 반응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복되는 좌절을 통해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진리, 즉 자기적인 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은 잉크'를 사용해야한다는 사실을 터득했다. 그래서 그녀는 좀더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묘사를 요구하는 출판사의 구미에 맞게 자신의 억압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극화시켰고 어느 날 마침 만족해하는 출판사 사장의 전화에 이어 얼마후 그녀의 투쟁사는 '본적 페미니즘 소설'이란 부제가 새겨진 조잡한 색깔의 표지로 장식된 채 담당하게 서점 진열대에 올려져서 된 것이다.

김애주 (문과대 영문과 강사)



◇외국의 경우 단편영화가 일상적으로 TV에 상영되기도 하며, 칸느영화제에는 단편영화 부문이 있을 정도다. 사진은 세계 단편영화제 오버하우젠 출품 작품 포스터.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만 만드는 사람만이 있을 뿐인 영화. 그 만드는 사람들도 대략 각 대학 영화과, 영화관련 동아리, 동호회, 독립영화 단체, 개인 등이 아주 극소수인 영화. 이것이 우리 단편영화의 현실이지만 이 영화의 실험성, 참신함, 진지한 삶의 태도, 만드는 기쁨, 예술성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과 가치는 말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단편영화 환경을 만드는 데는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10분 내외의 경우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3백~5백만원 정도가 든다. 이는 적은 액수도 아닐 뿐더러 여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이 작업에 자신의 전부를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생산(경제적)은 없고 부자만 있는 이러한 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대부분의 제작자들은 다른 생계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화를 만드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단편영화 제작에 있어서 여러 고인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단편영화가 영화산업의 한 분야로서 당연히 제 몫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독일의 경우 단편영화가 일상적으로 텔레비전에 소개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고 방송국에서 눈에 띄는 단편작가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또한 국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주기도 한다. 한편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칸느 영화제'에도 단편영화 부문이 있을 정도로 이미 외국에선 이 분야의 예술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영학의 패러독스

단편영화 ③ 제도적 지원과 미래상

유선방송에 단편영화

채널마련 요구돼

공식적 배급·상영통로 없는 것도 문제

최근 기존의 상업영화제작처럼 단편영화들이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전문적인 단편영화 상영공간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아직 단편영화가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요원한 일인 듯하다. 그런 이러한 작은영화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본질적 원인은 물론 공식적인 배급 상영통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에서도 그렇듯 단편영화의 커다란 특성중의 하나인 체제에 저항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단편영화가 사회에 끼치는 정치적, 문화적 공헌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온 만큼 우리도 실험성과 운동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단편영화 제작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작업이 그저 정권 상업영화를 만들기 위한 습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경로를 거쳐 상업영화를 만들게 된 경우도 요즘은 눈에 띄게 늘고 있기도 하다. 참신한 작품들을 만들어 내던 역랑의 작가가 상업영화를 만들 때는 여러 제약으로 자신만의 독특함을 잃어버리고 기존영화에 편입되는 현상은 안타까움을 넘어 영상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단편영화 가지는 고유의 영역 즉 소수의 제작비, 인건비,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의지, 무한한 상상력을 형성화시킬 수 있는 이 분야만의 특성이 잘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또한 단편영화인들도 독자적, 산발적인 활동보다는 연대를 통해 좀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단편영화를 더 이상 그들만의 영화로 만들고 자족하기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하겠다.

우범준 (대학원 영문과 석사과정)

대학문화

⑤ 매시간 50분의 풍경

매시간 50분쯤, 강의실 밖의 풍경은 어떤가? 다음 수업을 기다리면서 강의실이 비워져가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 말이다. 현재 본교 강의실의 크기는 마이크로 대고 말하는 너무 적고, 욕심으로 말하면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조용하게 듣고 있어야 정확히 들릴만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 대학정원은 매년 늘어가고 건물 크기는 한정돼 있어 시간만

다 비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시계를 보지 않아도 밖에서 떠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가는 것을 듣고 알게 된다. 바쁜 일이 있는지 뛰어가는 듯이 들리는 구두소리. 이사람 저사람 불려대는 소리에 방송시절이 전혀 안돼 있는 강의실 안에선 교수, 학생 할 것없이 인상을 찌푸린채 책을 접는 모습이 많이

들 보이고 있다. 강의실 안의 풍경도 이에 만만치 않으리라 여겨진다. 출석 확인을 하는 도중에 문을 여닫느라 분주하고, 인사도 없이 허둥지둥 자리를 뜨는 모습들. 대학의 수많은 모습들중 빼놓을 수 없는 강의실 주변 풍경들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치다. 누가 나와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해도 쉽사리 받아들여지

지 않는지라 교수도 대부분이 문을 닫아버리는 예가 허다한 것이다. 이제 곧 여름이 오면, 문을 닫고 강의할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는 날씨에 인상 찌푸리며 정리를 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보는 것이 어떨까?

(문희부)

메이리

5·18 정신

▲몇년전 고등학교 다닐때의 일이다. 광주에서 친구 한명이 서울로 전학을 왔다. 88년 국회 청문회이후 광주항쟁에 관한 메스컴의 보도가 조심스레 진행되던 때다. 5·18 민중항쟁이라는 생소하고 여성과 접한 지식으로 단순한 궁금증을 지닌채 전학 온 친구에게 그때 상황이 기억나는지를 물었다. 당시 친구는 국민학교에 갔 입학했을 나이였다. ▲갑자기 친구는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기억나는 것은 밖에서 총소리가 크게나서 무서웠기 때문에 방구석에서 이불쓰고 웅었다고 했다. 부모님이 잘대 밖에 못 나가게 한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이런 얘기조차 못하게 했다고 한다. 친구가 순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얘기하는것조차 금기시하던 때가 분명 있었고 광주시민들에게는 그것 역시 한으로 남아있

는거다. 얼마전 방영한 '오래시계'도 얼마나 당시를 사실적으로 재현했는가 보다. 5·18을 소재로한 드라마가 안방극장에 버젓이 방영되었다는데 더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얼마전, 80년 당시 광주에서 선교활동을했던 피터슨 목사의 증언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무방비상태의 시민에게 20일부터 시작된 총

격, 무차별한 헬기 기총사격이 자행되었음이 드러났으며 미국계인 또한 밝혀졌다. 광주민중항쟁의 확실한 진상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책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5·18의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때인것은 틀림이 없다. ▲광주시민들은 이제 더이상 당시의 희생이 감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화를 위한 열망과 그 정신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 같다. 그러한 바람은 올바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후에야 가능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시인은 말한다. '방황묘역에 대이상근조의 검은 현수막을 내걸지 말자, 추모를 하자 하여도 무명의 주검이 많은데, 용서를 하자 하여도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데,' (소)



POSCO 매서치 대동제천. 가슴 가득, 달덩이처럼 벅찬 환희를 안고. 씻은듯 맑은 봄, 서둘러 축제의 뜨락으로 나서자. 분수처럼 치오르는 가슴. 봄의 대지에 열병하는 아지랑이. 이성도, 회의도, 사랑도... 가슴에 묻어 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 외치면, 우리의 합성은 천리를 간다. 정열은 하늘 끝까지 치솟는다. 저 달에 악보를 그려 부르는 축제의 서곡, 일관한 막걸리 한주발에도 오색깃발은 휘둘거린다. 오늘은 젊음의 해방기 - 눈부서 일어나 맞이할 수 없는, 가슴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참을 수 없는 아 - 젊음의 축제여!